

● 아래의 해당란에 주요한 Keyword를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대학 특별활동사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로봇동아리 학부 4년동안 활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 벤처동아리 활동경험 3년, 독서클럽 활동 1년.
리더십활동사례	로봇동아리 회장 역임 - 로봇동아리를 4년 활동하면서 회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동아리 외부에서의 지원을 이끌어 오거나 내부적으로 동아리의 능력을 올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벤처동아리 부회장 역임 -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상경력	학부 우등상, 학부 우수상, 연세대학교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은상, 삼성테크윈 로봇멤버십 로봇 경진대회 동아리부분 수상
특기 및 자격증	로봇동아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나 모터와 같은 하드웨어 제어와 관련 프로그래밍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있으면서도 로봇팔을 제작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과거 이수과목 중 관심 과목	인공지능 - 전반적인 인공지능의 역사와 분야, 그리고 기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호및시스템 - 많은 과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시스템과 신호에 대한 관계와 그들의 중요한 특성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희망전공분야 및 연구 주제	신경망을 이용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계획하는 것에 신경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구현. 신경망의 특성을 이용하여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같은 로봇의 개발.
장래계획	아직까지는 신경망이 대부분 패턴인식에 이용이 되고 있고, 로봇에 응용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경망과 로봇을 연결하여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인간과 로봇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마치고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동기	평소 전기전자 공학을 전공하면서도 뇌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어왔는데, 전기전자공학과 뇌과학의 접점에 있는 연구 분야가 카이스트에 있기에 한학기 먼저 인턴을 해 보고 분야가 마음에 들어 결국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지망 지원동기 및 연구계획 (2지망 지원자만 해당)	

● 자기소개 및 면학계획을 아래의 공란에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기술하십시오.	
<p>저는 잠을 자는 것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게 되면 혹시 숨을 쉬는 것을 잊고 행여 죽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것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어린이를 위한 과학책을 보고는 숨을 쉬는 것은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런 두려움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때부터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그 후로도 이어나가게 되었고 중, 고등학교를 거치며 더욱 흥미가 생겨 대학을 진학 할 때는 전기전자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p> <p>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면서는 스스로에게 맞는 올바른 길을 찾는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는 정해진 틀 내에서 생활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모든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생활을 하면서는 전공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 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첫째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에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둘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벤처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응용해 보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로봇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독서클럽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노력을 통해 인생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올바른 방향을 어느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지금은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생각을 통한 뚜렷한 확신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카이스트에 전기전자공학부에 진학하게 된다면 신경망을 활용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 할 것입니다. 기존에 여러가지 인공지능 기법이 존재 했었지만, 신경망은 스스로 조직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이 때문에 사람과도 같은 높은 성능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아주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경망의 이용이 컴퓨터 비전쪽에서, 특히 패턴인식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 져 왔었는데, 이런 유연성과 높은 성능을 로봇에 응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아직 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로봇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고, 로봇이 인간의 생활에 들어와 함께 활동하는 시대에도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구글같은 거대 IT기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경망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인데, 인간이 실제로 언어를 학습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배우는 과정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비교적 적은 학습으로도 무수히 많은 출력과 응용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우 효율적인 인간의 신경망이 가지는 구조와 능력을 인공신경망 연구에 응용하여 강한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구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면서도 관련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있으며 바이오뇌공학과와 계산신경과학 수업을 청강하고 있으며 인지공학에 대한 책도 읽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학업에 관한 열정적인 노력을 하여 멋진 연구자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p>	